

여수 청년정책, 해양·관광·문화 일자리 초점

市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보니

청년물 조성·아일랜드 청년유람단 등 제시...다음달 확정

여수의 청년 정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즐기면서 머무르고 활동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여수시는 최근 시장 상황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활동가, 청년정책 TF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여수의 기본방향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세부 추진 과제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호삼 전남대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산학협력단은 여수 청년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한 뒤 기본방향과 과제,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했다.

◇여수 청년들은 =산학협력단의 여수 청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수의 청년 비율은 여수 전체 인구(28만8988명)의 31.3%로 전남지역 내 청년비율(28.5%)보다 높았다. 또 청년 고용률은 55.2%로 국내 청년 고용률(42.3%)보다 높고 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28.5%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 청년들의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균 여가시간은 3시간 미만인 대부분을 차지했고 선호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여행

(24.7%), 문화예술 관람(15.2%), 자기계발(14.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수 청년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가 73.8%로 높았고 74.3%가 지역 여건도 3년 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높은 주거·지역 만족도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관광·문화 스포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 여수 장점 활용해야 =산학협력단은 일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여수가 돼야 청년이 선택하는 여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해양도시의 장점을 활용한 관광, 문화 및 해양 분야에서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기본방향을 뒀다. 또 청년들의 기본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문화생활의 직접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단은 이를 토대로 ▲청년고용 ▲인재역량 개발 ▲복지·문화 ▲청년 참여 확대 분야로 나눠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과 중·단기 실행 계획 등을 제시했다.

'청년 고용' 분야에서는 여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근무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청년 장기 재직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여수산단 내 중소기업



여수시는 지난 20일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여수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위한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설 등을 제안했다. 또 웅천지구를 거점으로 한 마리나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 마리나 서비스산업이나 레저선박 정비수리업 육성 방안도 내놓았다. 이외 전통시장 청년물 사업이나 청년 유턴 고용 장려금 사업 등도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됐다.

'인재역량 개발'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한편,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여수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고교나 대학 진학 시 장학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여수 해양·섬 관광 활성화에 맞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관광스토리텔러 양성 스킴 사업과 귀어·귀촌하는 청년들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문화'에서는 청년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동육아 보육 코디네이터를 청년 인턴으로 선발해 교육시켜 파견하는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등이 눈길을 끈다

협력단은 아울러 연중 청년 거리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여수 365개 섬을 돌며 테마별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섬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 365 아일랜드 청년유람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 관심을 받았다.

여수시는 이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부서별로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시민 10명 중 7명 시정 만족

여수지역사회연 여론조사

여수시민들 10명 중 7명은 시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최근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여수시정 만족도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도 100점 만점에 69.8점으로 조사됐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공무원 청렴도와 민원행정서비스, 시민과 소통, 관광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교통환경, 전반적인 시정운영 등 시정 만족도 8개 문항과 지역 현안 3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

를 벌였다.

조사결과, 공무원 청렴도는 70.2점을 받았고 민원행정 서비스는 73.6점, 시민과의 소통은 69.2점, 관광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73.6점을 받았다.

또 교육정책 64.6점, 사회복지정책은 70.8점, 교통환경은 72.4점을 받았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10~12일 시민 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85.2%, 전화조사 14.8%의 비율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 포인트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디오션 워터파크 밤에도 즐기세요

다음달 26일까지 야간 개장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사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간에도 운영한다.

디오션리조트는 다음달 26일까지 실내·외 워터파크 개장 시간을 밤 8시까지 늘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오후권을 구입할 경우 오후 4시, 6시부터 발매된 입장, 2시간 늘어난 밤 8시까지 물놀이

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디오션 인피니티 폴'도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리조트측은 야간개장을 계기로 워터파크와 야간 인피니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후아 인피니티권'과 '야간 인피니티권'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 입장권은 오후 4시, 6시부터 발매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고흥 연안여객선 다음달 10일까지 증회 운항

여수와 고흥에서 출항하는 연안여객선이 증회 운항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21일간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예비선 4척을 추가로 투입해 운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운항 횟수도 17개 항로에서 59회 늘어 모두 242회 운항한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19만여 명이지만 올해 여객선 증회 운항이 이뤄지면서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관광객 편의 제공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객선 특별수송지원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박람회장 사후활용 정부 적극 지원 요청

여수시가 최근 개최한 박람회 5주년 기념식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게 핵심 취지였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그만큼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데 절실하다는 얘기다.

◇부지 매각·임대·활성화 안간힘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박람회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주요시설 입장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박람회장 입장객은 162만37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62만300명)보다 늘었다. 2015년에는 318만 명이 찾아 64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작년에는 304만명이 입장해 55억원을 벌었다. 민간 투자도 끌어와 3개 업체가 1132억원을 투자, 해양레포츠채널, 리조트, 마리나시설 등을 건립키로 한 상태다.



여수박람회장의 핵심 콘텐츠인 빅오소가 펼쳐지는 박람회장 내 전경. 여수지역민들은 박람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원해야 =여수지역민들은 더 나아가 박람회장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건립중인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의 추가적 확보

를 비롯, 박람회장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설립 및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지난 2013년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에 따

청소년해양교육원 예산 확보 등 시민들 미래성장동력 육성 촉구

라 해양박람회 특구를 지정, 부지 일괄 매각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2015년 5월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을 변경, 부지는 매각하고 시설은 매각과 장기임대(10년)를 병행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가 최근 개최한 박람회 5주년 기념식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게 핵심 취지였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그만큼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데 절실하다는 얘기다. ◇부지 매각·임대·활성화 안간힘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박람회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주요시설 입장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박람회장 입장객은 162만37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62만300명)보다 늘었다. 2015년에는 318만 명이 찾아 64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작년에는 304만명이 입장해 55억원을 벌었다. 민간 투자도 끌어와 3개 업체가 1132억원을 투자, 해양레포츠채널, 리조트, 마리나시설 등을 건립키로 한 상태다.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모집 안내

-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 모집인원: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 캠프장소: 마닐라 알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엔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http://blog.daum.net/e.powe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땀방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